

믿음인가? 느낌인가? (3)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믿음은 느낌과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때 느끼고 보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7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신다. 성도인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누리고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썩지 않고 영원토록 누리는 영생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보이는 눈요깃감에 영생과 영원을 놓치는 자들이 되고 만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고 느낌과 감정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과 절망과 불만과 원망에 빠지게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을 때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며칠 만에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는가? 팔 일만이였다. 그러면 그동안 도마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예수님께 매우 섭섭하였을 것이다. “왜 예수님은 하필 내가 없을 때 나타나신 것일까?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시다니!” 다른 제자들 앞에서 도마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이성적이고 더 잘난 것처럼 큰 소리는 쳤지만, 얼마나 다시 불안과 초조함과 걱정과 불평의 날들을 보내었을까? “내가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판 자도 아니고,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대로 영영 안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아니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과 기대로 팔일을 기다렸을까? 보는 것으로 믿는 자들은 언제나 보고자 하는 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과 실망과 원망을 나타내기 쉽다. 도마는 다른 아닌 현대 신자들이고 우리들이다.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자들이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을 때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요 11:39)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 부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요 11:40). 그렇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어야 죽었던 나사로의 부활을 볼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눈으로 직접 보고, 현실로 나타나야 믿겠다는 것은 마치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자 하시는 기적의 삶, 보지 못하여 죽은 자같은 삶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부활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다. 믿으면 보리라! 무엇을 보게 되는가? 우리가 기대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보게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느낌과 기분과 감정에 솔직하며 살자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고, 보면 믿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 기적, 부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희들이야말로 복된 자이다! 나를 직접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토록 믿고 내 말에 순종하다니! 눈에 흠모할 만한 보이는 것이 없는 나와 내 피로 세운 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다니!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내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믿고 사랑하다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믿는 자들이다! 참으로 복 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믿음인가? 느낌인가? 어느 편에 속한 자인가? 어느 편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느낌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느낌을 이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

라!